

# ‘경기침체 직격탄’ 화학사, 첨단소재 등 신사업으로 버텼다

## 3분기 국내 화학사 실적

올 에틸렌 스프레드 가격 35%↓

**롯데케미칼** 마진감소 ‘어닝쇼크’  
금호석화 매출 16% 영업이익 63%↓

**LG화학** 첨단소재 매출 5822억  
LG엔솔 영업이익 확대에 부진 메꿔  
**한화솔루션** 태양광 모듈 ‘효자’로  
영업이익 25% 늘어 ‘사상최대’ 기록



LG화학 대산공장.



롯데케미칼 여수공장.

전분기 대비로는 매출은 15.8%, 영업이익은 2.6% 증가한 실적이다.

이런 실적을 견인한 부문은 첨단소재 부문이다. 해당 부문의 3분기 매출은 2조 5822억원, 영업이익 4158억원을 기록으로 전지재료 출하 확대 및 판가 상승에 따른 매출 성장세를 유지했다. 배터리 핵심 소재인 양극재 사업 비중이 확대되는 등 배터리 완제품을 제조하는 자회사 LG에너지솔루션의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면서 석유화학의 부진을 떨쳐냈다.

LG화학은 “4분기에는 메탈 가격 하락에 따른 양극재 매출 감소가 예상되지만, 향후 안정적인 출하 물량 증가로 성장세는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화솔루션도 태양광 모듈이 효자역할을 해냈다.

한화솔루션은 올해 3분기 연결기준으로 매출액 3조 3657억원, 영업이익 3484억원을 기록했다. 매출액은 전분기 보다 0.7% 감소했지만 영업이익은 25.4% 증가하며 출범 이후 사상 최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석유화학 관계자는 “글로벌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세계적인 탄소중립 기조가 이어지고 있어 석유화학업계로서는 전통적인 사업만을 고집할 수 없게 됐다”고 말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metroseoul.co.kr

세계적인 소비위축 환경과 ‘중국 봉쇄’발 공급과잉으로 국내 화학사들이 대체적으로 저조한 3분기 실적을 거뒀다.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석화산업 자체가 부진했음에도 2차전지(배터리) 소재와 첨단사업 등 신사업으로 실적을 올린 기업들은 업황 악화를 만회하며 호실적을 거뒀다.

### ◆ 대내외로 몰려오는 파고에 ‘줄 손실’

9일 화학업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계에서 ‘석유화학의 썰’로 여겨지는 에틸렌 스프레드 하락이 실적에 큰 타격을 입힌 것으로 분석했다. 경기침체로 완제품 생산량이 줄면서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줄어든 탓이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올해 1분기 평균 톤(t)당 278달러에서 3분기 180달러로 35% 하락했다. 이는 지난해 3분기 335달러와 비교해도 46%나 떨어진 수치

다. 에틸렌 스프레드의 하락은 원료와 가공품 가격 차이가 감소해 마진이 그 만큼 적어진다는 의미다. 에틸렌 스프레드는 통상 300달러를 손익분기점으로 본다.

그 결과로 국내에서 에틸렌 생산량이 가장 많은 롯데케미칼의 경우는 3분기 에틸렌 스프레드 마진 감소로 ‘어닝쇼크’를 맞았다. 롯데케미칼의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은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27.9% 늘어난 5조 6829억원을 기록했고, 영업손실액은 같은 기간 적자전환하며 4239억원을 기록해 시장 기대치를 밟도록 성적표를 받아들었다.

롯데케미칼은 컨퍼런스콜을 통해 “여수공장 정기보수완료와 신규설비가 동으로 전분기보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원료가 하락에 따른 래깅효과가 반영되

고 글로벌 제품 수요 하락으로 스프레드가 악화되며 낮은 수익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금호석유화학도 3분기 매출은 1조 8871억원, 영업이익은 23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동기 대비 매출은 15.6%, 영업이익은 63.1% 감소한 실적이다. 대한유화도 전년과 비교해 매출은 25.46% 감소했으며 3분기 영업손실은 601억원을 기록했다.

이어질 업황 악화는 4분기에도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롯데케미칼은 기초소재사업 부문의 4분기 전망에 대해 “역내 신증설 물량 유입이 지속되는 가운데 글로벌 수요 개선은 제한되며 어려운 업황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전통사업인 석유화학부문에서 벗어나 미래 먹거리를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이번 분기 매출 성장과 수익성을 높인 LG화학도 석유화학부문의 매출은 저조했다. LG화학의 석유화학부문은 전분기에도 원료가 상승과 경기둔화로 스프레드가 줄었지만 매출 5조 9876억원, 영업이익 5132억원을 기록해 견조한 수익성(8.6%)를 보인 바 있다. 하지만 3분기에는 석유화학부문의 매출은 5조 4931억원, 영업이익 926억원으로 유가 상승과 글로벌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수요 감소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급락했다.

### ◆ ‘신사업’으로 버틴 3분기

이런 환경 속에서도 실적을 올린 화학사들은 신사업으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LG화학의 올해 3분기 매출액은 14조 1777억원, 영업이익 9012억원의 경영실적을 달성해 전년동기 대비 매출은 33.8%, 영업이익은 23.9% 증가했고,

## LG전자, 車 부품 성능검증 AI플랫폼 개발

### 소프트웨어 개발 기업 알테어와 맞손 개발과정 데이터 등 표준화·시각화

LG전자가 자동차 부품 개발에도 디지털 전환(DX)을 도입하며 전장 사업 성장에 속도를 냈다.

LG전자는 최근 알테어와 자동차 부품 성능을 데이터 기반으로 검증하는 AI 플랫폼을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알테어는 시뮬레이션과 고성능컴퓨팅 등 기술을 기반으로 맞춤 소프트웨어와 솔루션을 개발하는 전문 기업이다.

LG전자는 알테어와 함께 ▲시계열 데이터 변환 알고리즘을 적용해 자동차 부품 개발과정에서 나오는 다양한 데이터를 ‘표준화’하고 ▲머신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 자동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학습’하며 ▲분석 결과를 한 눈에 보기 쉽도록 ‘시각화’해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했다.

이 플랫폼을 활용해 고객사 요구사항 분석과 같은 개발 초기 단계부터 단계



LG전자 연구원들이 시뮬레이션 전문 기업 ‘알테어(Altair)’와 함께 개발한 AI 검증 플랫폼을 자동차 부품 개발과정에 활용하고 있다.

별 성능을 예측해 더 우수한 자동차 부품을 만들 수 있다. 또 성능 검증을 자동화해 개발 속도를 높이고, 개발과정에서 생성되는 방대한 양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LG전자는 추후 AI 플랫폼을 기획부터 양산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정에 적용해 전반적인 제품 성능과 품질을 향상시킨다는 전략이다.

알테어 샘 마할링엄 최고기술책임자(CTO)는 “제조업 R&D에 필수로 활용되는 공학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집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매우 방대하며, 이를 통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표준화된 플랫폼 구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엔지니어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다양한 AI 기술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재웅 기자 juk@

## LS전선, 전기차용 H-ESS 개발 추진

### LS마트리얼즈와 국책과제 참여

LS전선이 안전한 ESS 개발에 나선다. LS전선은 LS마트리얼즈와 ‘전기차 충전용 하이브리드ESS(H-ESS) 개발’ 국책과제에 참여한다고 9일 밝혔다.

H-ESS는 기존 ESS의 리튬이온 배터리(LIB)에 산업용 특수 배터리인 리튬이온 커匮시터(LIC)를 결합해 전력 공급의 안정성을 높이고, 화재 위험성은 낮춘 제품이다. LIC의 순간적인 고출력 기능을 적용하면 충전소에서 전기

차를 여러 대 동시에 충전하는 피크 타임에도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 해 주면서 열 폭주에 의한 화재 가능성이 낮다. 에너지 효율도 높아 소용량화도 가능하다.

LS마트리얼즈가 대형 커匮시터 기술을 기반으로 전체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LS전선이 온도모니터링, 충방전 제어 시스템 등을 개발한다. /김재웅 기자

## 삼성 스마트싱스 아파트 10만세대 돌파

### 18개 건설사서 112개 단지에 적용

삼성전자 스마트싱스 아파트가 10만 세대를 넘어서졌다.

삼성전자는 10월말 기준으로 이같은 성과를 거뒀다고 9일 밝혔다. 국내 가전업체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다.

스마트싱스 기반 스마트아파트는 18개 건설사, 112개 단지에 적용했다. 2020년 11월 서울 서초구 삼성물산 래미안 리더스원을 시작으로, 앞으로 신규 입주를 앞둔 300여개 단지 25만여 세대에도 스마트싱스를 추가로 적용할 예정이다.

스마트싱스 기반 스마트아파트는 스마트싱스 앱으로 가전제품 제어 뿐 아

니라 조명과 냉난방기, 환기장치 등 다양한 기기를 제어할 수 있다. 엘리베이터 호출이나 가스 밸브 상태 조회, 주차 정보와 부재중 방문자 조회 등 편의 정보도 통합 관리 가능하다.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사용하면 전력 사용량과 요금을 확인하고 에너지 절감 활동도 가능하다.

삼성전자는 지난 10월 입주를 시작한 포스코건설의 부산광역시 남천 더샵 프레스티지에 스마트싱스 에너지 서비스를 도입했으며, 향후 더 많은 사용자들이 차별화된 에너지 관리 솔루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다른 건설사의 아파트에도 적극 확대할 예정이다.

/김재웅 기자

## 모바일용 D램에 업계 첫 ‘HKMG 기술’

### SK하이닉스, LPDDR5X 판매 개시

SK하이닉스가 모바일용 D램에도 차세대 공정 HKMG를 업계 처음 도입했다.

SK하이닉스는 HKMG를 도입한 LPDDR5X(사진)를 개발하고 판매를 시작했다고 9일 밝혔다.

HKMG는 유전율이 높은 물질을 활용해 누설 전류를 막고 정전용량을 개선하는 방법이다. 메모리 속도를 높이면서 전력을 줄일 수 있다.

SK하이닉스가 만든 LPDDR5X는 HKMG를 통해 초전압 범위인 1.01에



서 1.12V에서 작동할 수 있게 만들어 이전 세대보다 소비 전력을 25% 줄이는데 성공했다. 그러면서도 속도는 이전 세대보다 33% 빠른 8.5Gb/s다.

SK하이닉스는 이를 통해 모바일 디바이스 전력 소비를 더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탄소 중립을 추진 중인 경영가치도 충족했다는 설명이다.

/김재웅 기자